



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유로지역 경기침체는 주변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부진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.

- 유로경제는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, 은행 신용축소, 정부 재정감축 등으로 내수 부문이 부진해지면서 2012년 1/4분기 현재 경기침체 국면에 처함.
- 미국경제는 2012년 1/4분기 초 경기회복세가 나타났으나, 이후 유럽 재정위기 심화, 이란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해짐.
- 2012년 1/4분기 중국경제는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둔화됨.

■ 최근 전세계 제조업 경기가 동반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.

- 유로존의 6월 제조업 PMI(구매자관리지수)는 45.1을 기록, 11개월 연속 기준치(50)를 하회함.
 - Markit Economics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低물가로 기업수익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,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대로 투자와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함.
- 영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45.9)대비 소폭 상승한 48.6을 기록하였으나, 경기회복 기준치에는 2개월 연속 미달함.
- 미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53.5)대비 하락한 49.7을 기록하여 2009년 7월 이래 최저 수준에 이름.
 - ISM은 6월 제조업 PMI 하락 원인이 유럽 재정위기,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이라고 밝힘.
 - 그러나 5월 공장주문¹⁾과 6월 자동차판매²⁾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 악화 완화 조짐도 나타남.
- 중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48.4)대비 하락한 48.2를 기록하여 7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함.

1) 전월(-0.7%)대비 0.7% 증가하여 최근 3개월만에 처음 증가함.
 2) 신차 교체수요 및 저금리 할부구매 등이 원인임.

- HSBC/Markit은 유럽 재정위기로 해외주문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힘.
- 호주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42.4)대비 상승한 47.2를 기록하였으나,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함.
 - 호주산업협회/PWC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호주달러 강세와 환경오염세 신규 부과 우려 등이 원인이라고 밝힘.
- 대만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50.50)대비 하락한 49.20을 기록함.

■ **일본과 인도의 6월 제조업 PMI는 악재가 해소되면서 상승하였으나,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세계경기 부진 지속으로 제조업 경기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.**

- 일본의 2012년 2/4분기 대기업 제조업 단간지수는 전분기(-4)대비 상승한 -1을 기록하여 3분기 만에 상승함.
 - 홍수 피해를 입은 태국의 산업시설이 복구되면서 일본의 제조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고,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수익이 증가하면서 자동차³⁾ 및 기계류, 전기기계 생산이 증가함.
 - 그러나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는 세계수요 부진이 일본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.
- 인도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(54.8)대비 소폭 상승한 55.0을 기록, 4개월 내 최고치에 도달함.
 - 2012년 1/4분기 인도의 제조업 성장률은 고금리로 인한 기업 신용 축소, 비경제적 문제⁴⁾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.3% 하락하였으나, 최근 비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회복세를 보임.

(Bloomberg 등, 7/3)

3) 2012년 상반기 일본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5% 증가하였고, 6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41%를 기록하여 10개월 연속 상승함.

4) 철강 및 발전 분야에서 토지 획득 승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.